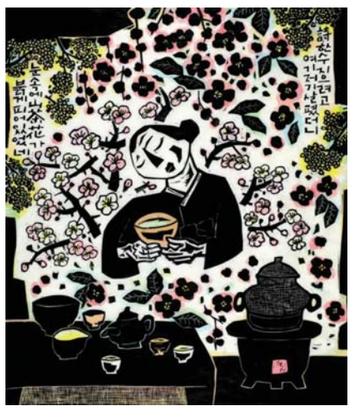


홍선웅의 '산다화(山茶花)' (2011). 담소창작스튜디오 제공

목판화가 홍선웅 초대 전시 내일부터 담소창작스튜디오 개막식 후 작가 특강도 진행

담소창작스튜디오가 릴레이 개인전 프로젝트로 홍선웅 목판화 초대전과 특강을 마련했다. 담소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만장일치로 올해 가장 모시고 싶은 예술가로 추대하며 성사된 전시다.

담소창작스튜디오 측은 홍선웅 작가에 대해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과 현대 목판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오윤(작고) 작가와 함께 활동하며 한국 목판화의 조형성을 확립했다"고 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표지 목판화가 그의 작품이다. 한국 판화사의 기원과 흐름을 정리한 '한국근대판화사'도 냈다. 2020년대 들어선 서해 접경지역, 독도, 역사적 비극과 평화를 주제로 한 다색 목판화와 판화 연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홍 작가는 제주와도 인연을 이어 왔다.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 진혼가'를 발표했고 2019년에는 예술공간 이아 초대전을 갖는 등 제주의 아픈 역사와 미학적 가치를 목판화의 묵직한 칼끝으로 새기며 제주 미술계와 교감해 온 작가다.

초대전 일정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담소창작스튜디오 갤러리(제주시 은남4길 22).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막식은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개막식에 이어 홍선웅 작가의 특강을 진행해 치열한 작가 정신과 시대적 사유를 관람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주말, 여기 제주도·국립제주박물관 '모두모악'

국박 마당에서 공연 보고 체험하고



다니엘 린데만 퀸텟. 제주도 제공

8일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행사 다니엘 린데만 퀸텟 등 6팀 출연 성악·재즈·마술·태권도 시범 등 바닥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장도

제주도와 국립제주박물관이 주말에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길 수 있는 기획 행사를 펼친다. 이달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립제주박물관 야외 공간 일원에서 진행하는 '모두모악(樂)'이다.

'모두모악'은 '모두 모여 함께 즐기는 문화 예술'이라는 뜻으로 지었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김영갑갤러리두모악 기증 작품을 활용한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고(故)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점을 살려 명명했다.

이번 '모두모악'에는 국악, 클래식, 재즈, 밴드, 마술, 청소년 태권도 시범 공연 등 6팀의 무대가 잇따른다. 블리스앙상블을 시작으로 레이매직, 단디밴드, 제라한태권도 시범단, 광개토제주예술단, 다니엘 린데만 퀸텟의 공연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이 중 다니엘 린데만 퀸텟은 독일 출신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로 친숙한 다니엘 린데만을 중심으로 꾸린 5인조 재즈 밴드. 정통 재즈부터 보사노바, 팝, 가요, 서정적 자작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했다.

광개토제주예술단은 길트기와 국악 공연으로 신명을 더한다. 블리스앙상블은 오페라, 가곡, 뮤지컬, 팝페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전문 성악 앙상블이다. 단디밴드는 제주 기반의 4인조 밴드다.

이날 방문객을 위한 체험장도 운영한다. 풍선과 솜사탕을 나눠주는 환영 체험장, 한글 자모와 전통 문양을 담은 홀로그램 스티커로 꾸미는 키캡 열쇠고리 만들기, 행사장 바닥에 '문화의 날' 문구를 함께 그리는 바닥 그림 그리기 등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탐라문화광장에 마을 이야기 모인다

제주다움 인문실천 페스티벌 6개 마을 참여 특산물 홍보 등 어린이 체험 부스·마을 공연도

주말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 제주 마을의 이야기가 모인다. 제주문화포럼이 마련한 '2026 제주다움 인문실천 페스티벌'이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사)제주문화포럼이 주관하는 '2026 지역인문실천-제주답게: 암묵적 갈등을 넘어 새로운 제주다움으로' 사업 일환으로 열린다. 도내 6개 마을(애월읍 고성1리, 도련1동, 대정읍 무릉2리, 조천읍 북촌리, 우도면 조일리, 대정읍 일과1리)에서 진행해 온 제주다운 마을 공동체를 향한 인문 실천 '인문촌문(人紋村紋)-터무늬 잇수다', 제주다운 교육 공동체를 꿈꾸는 인문 실천 '마을을 읽고 잇다', 세대 교류 프로젝트 '홀몸 삼춘의 생애사: 스토리코프스 인 제주'의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제주다움을 함께 모색한다.

축제는 '마을의 무늬가 제주의 무늬가 되다'란 부제 아래 이달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어진다. 결과물 발표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축제의 주체로 나선다. 별담작은도서관, 마음따옴표, 노리곳간, 아무튼서점, 제주두루나눔은 협력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탐라문화광장에는 '올래책방'이 차려진다. 마을별 특산물 홍보, 지름떡 조리 시연과 시식, 어린이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길트기 풍물 공연, 참여 마을 공연, 이야기 마당, 초청 공연도 잇따른다.

마을 공연으로 오카리나 합주(도련), 색소폰 연주(고성), 라인댄스(무릉), 제주민요 해녀 공연(우도), 난타(북촌)를 볼 수 있다. 이야기 마당은 '마을에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꾸민다. 초청 공연에는 권미숙의 판소리, 양정원의 제주어 노래, 제주두루나눔의 마당놀이가 펼쳐진다.

제주문화포럼은 "이번 페스티벌이 단순히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아니라, 제주의 서로 다른 마을과 세대가 쌓아 온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선희기자

민속자연사박물관서 놀아보게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달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놀아보게~'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하반기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마련했다. 방문객들이 전시 관람과 체험·놀이·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날 어린이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인 '챗봇 미션레이스 고박사의 비밀수첩'을 운영한다. 선착순 50명에게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순발력 봉잡기, 사격 체험,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어바운스), 얼굴에 그림 그리기(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비석치기 등 민속놀이 열전, 미니운동회, 골든벨 퀴즈도 잇따른다. 오후 4시30분에는 비눗방울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당일에는 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가유산 이야기·사진 공모

제주도가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에 참여한 경험과 제주 국가유산의 매력을 담은 '제주 헤리티지와 함께한 순간' 후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2024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참여자들이 경험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 스탬프 투어나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는 이야기(스토리)와 사진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접수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공모전 안내를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서(구글폼)로 접수하면 된다.

가요 신파극 '여자의 일생'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의 '여자의 일생'이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의 2026 연극 특성화 사업 공연(이달 14일 오후 3시)에 이어 제주도 문화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여자의 일생'은 제주연극협회가 도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로 기획했다. 국민성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이태훈 연출가가 재구성과 연출을 담당했다. 대중가요와 트로트를 접목한 '가요 신파극'(악극)으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여인이 겪은 기구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그린다. 제주 연극인과 무용단, 연주자들과 함께 중견 배우 최종원이 유랑극단 단장 겸 '해설(변사)' 역을 맡았다. 18~19일 오후 7시30분. 관람료 무료. 입장권 예약은 도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2026 담소미술인상' 제정 도민 십시일반 작가 지원 내달 19일 3개 부문 시상식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예술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 뿌리내려 창작의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며 도민 성금을 모아 제주 청년 작가 등을 지원하는 미술상이 만들어졌다. 제주시 연동 담소창작스튜디오에서 기획한 '2026 담소미술인상'이다.

이 상은 지금의 지역 예술 지원이 관 주도의 시혜적 방식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출발했다. 도민 36명이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400만원을 후원했고 이를 토대로 내달 19일 첫 시상식을 갖는다.

이번 미술인상은 담소와의 창작 인연과 지역 미술의 미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할 예정이다. 담소입주작가 부문(1명, 상금 150만원), 제주에서 활동하는 만 30~45세 청년 작가 대상 제주청년작가 부문(1명, 상금 150만원), 화가 지망생 고등부 부문(1명, 상금 100만원)이다. 수상작가에겐 기획 초대전 등 전시 기회도 준다.

담소입주작가·제주청년작가 부문은 공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고등부는 제주미술교과연구회 추천을 통해 수상자를 정한다. 2개 부문 공모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메일 kwan3700@naver.com 접수)다.

담소창작스튜디오 김순관 대표는 "지금 제주의 문화 지형을 바꾸고, 제주를 세계 K-아트를 품는 발원지로 도약시키는 대장정에 귀한 분들의 따뜻한 동행이 절실하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우 수 상

청재 김기열
제8회 추사 선생 숭모 전국 휘호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월봉묵연회 회원일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2026년도 행정고시

고 지 원
(부 : 고석찬 · 모 : 임미영)
2026년도 제70회 5급 행정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도면 고종사촌 일동
(고순덕, 고봉찬, 고순양, 고순배, 여대현, 여찬현)

합 축 격 CONGRATULATIONS
행정고시(2026)

고 다 은
(연세대 3학년)
부 : 고윤호 · 모 : 현경아
2026년도 행정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 가 가 족 일 동
외조부: (故) 현 민 강 작은 외삼촌: 현 경 훈
외조모: 좌 진 정 작은 외숙모: 한 명 미
큰 외삼촌: 현 경 무 이 모: 현 경 미
큰 외숙모: 추 옥 례 이모부: 김 길 용

수 축 상 CONGRATULATIONS
2026년 안전보안관 활동우수사례공모전
최우수상


김 상 현
2026년 안전보안관 활동우수사례공모전에서 개인부문(주최 :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현통상 직원일동